

다산포럼



김태희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다산연구소장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시안(西安)을 다녀오지 않으니 중국을 다녀왔단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탈리아 로마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송제수 교수의 중국 인문 기행에 합류한 분의 말이었다. 시안과 그 일대는 중국 고대의 오랜 중심 무대였다. 나야말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싫었다. 독서에 매진하고자 일에서 물러난 상황인데도 시간과 경비를 내어 참석했다.

‘산시성(陝西省)의 성도(省都)인 시안은 중국의 ‘고도(古都)였다.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은 첫 통일 제국인 진(秦)의 위용을 드러냈다. 한(漢)과 당(唐)의 도읍지로서, 우리에겐 ‘장안(長安)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이다. 부근에 한 무제의 무릉, 당 태종의 소릉, 당 고종과 측천무후의 건릉이 있었다. 대명궁과 장안성 등은 당나라의 전성기를 보여 주었다. 대안탑 등 불교 관련 유적과 서역의

화산에 올라 강호를 비웃다

흔적들이 개방적인 국제도시였음을 보여 주었다. ‘관중(關中)이라고 불린 시안 일대는 황하의 지류 등 여러 강이 중형으로 흐르고 있어 비옥한 곳이었다. 남쪽에는 진링(秦嶺)산맥이 동서로 병풍처럼 가로질러 있었다. 이 지역은 중국 고대의 역사에서 이른바 ‘중원’이라 할 수 있다. 황우가 이곳 관중을 소홀히 한 점이 건달 유방에게 패배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중원의 주인이 따로 있었던가? 중원은 지리적으로 중앙의 위치일 뿐이다. 중원의 주인 자리는 늘 변방의 새로운 도전자에게 넘어갔다. 주(周)나라도 앞선 상(商, 殷)나라의 서쪽 변방에 있던 나라였다. 진나라도 서쪽 변방의 나라였다. 황우와 유방도 남방의 변두리 사람이었다. 당나라의 건국 세력도 북방 유목민족 출신이었다.

더욱이 활동 무대가 확장되면서 중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 중심이었던 이 도시기 서쪽을 가리키는 서안이나 서경으로 이름이 바뀌었듯 중심은 옮겨갔다. 지구촌이 하나가 된 오늘날에는 더 더욱 중심이란 관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치산현에는 주나라 주공의 사당이 있었다. 입구에는 ‘몽견주공(夢見周公, 꿈에 주공을 보다)이라 새긴 비석이 있

었다. 공자가 꿈에 주공이 보이지 않으며 환탄했던 사실에서만 문구이다. 그만큼 공자는 주나라의 주공을 존송(尊崇)했다. 주공은 왕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문왕과 형 무왕, 그리고 조카 성왕을 도와 공(功)을 이루고 치(治)를 이룬 인물이었다. 주나라를 연원으로 한 ‘중화(中華) 내지 ‘화이(華夷)의 관념은 확장되고 변주되었다.

조선의 선비들은 주공과 공자를 존송하며 화이의 관념에 젖어들었다. 선진 문명을 동경하고 배우는 것은 문화적 안목과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좋은 생각도 경직된 이념이 되면 폐해를 낳는다. 수입된 화이론의 폐해는 더욱 심했다. 문명과 오랑캐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한쪽은 무조건 높이고, 다른 한쪽은 근거 없이 무시한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신 승리에 자족하며, 내부의 다른 생각을 억압했다. 이런 폐해가 비단 조선시대에만 한정된 것이겠는가.

여행 초기에 날씨가 불순했지만, 화산(華山)에 오를 때는 아주 쾌청했다. 화산은 약 2200m 높이로, 중국의 유명한 오악(五岳) 중 하나이다. 북쪽으로 오르 내리는 케이블카는 각도가 아주 가팔랐다. 깎아지른 바위로 이뤄진 화산은 무협지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북방엔 흉몽 무협소설의 대가인 진용(金甯)이 ‘화산논객(華山論劍)이라

쓴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작년에 작고한 진용에겐 애독자가 많다. 이념보다 실용을 택한 당사오포도 애독자였다. 무협지에 문외한이지만 비석 옆에 서니, 진용의 ‘소오강호(笑傲江湖)에 나오는 악불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화산파의 장문인 악불군은 별호가 군자검이다. 그러나 그는 위군자였다. 그가 절대 무공과 권력을 쫓다 가족도 제자도 배신하고 만다는 설정은 충격적이었다. 반면 그의 수제자 영호충은 정파와 사파를 넘나들며 사랑과 우정을 맺은 자였다. 기존의 문법인 정파 대 사파라는 선악 이분법을 벗어났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사실적인 것 아닌가. 그러나 영호충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등장인물처럼 강호의 인연에 얽매어 산다. 그래서 강호의 복잡한 일을 일소에 부치는 주인공이 더 더욱 매력적일지 모른다.

중원 제국의 영고성쇠를 돌아보는 기회였다. 마침 미·중 대결이 조성되는 작금이다.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건강하고 외부적으로 관용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나라가 패권을 얻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다시 복기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앞으로 사마천의 ‘사기’를 좀 더 현장감 있게 읽을 수 있겠다.

기고



남진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올해 4월 발표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은 2022년까지 지역 관광을 육성하고 관광 콘텐츠를 혁신함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2300만 명(2018년 15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관광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 제주를 제외하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광역시 한 곳을 올해 안에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 발표하고 내년에 일정 수준의 기반 시설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네 곳을 관광 거점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관광 입국 각료 회의를 주재하며 관광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일본의 관광 정책에서 배울 점

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경제 침체와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침체된 일본 경제를 부흥하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관광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0만 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3200만 명으로 5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2020년 4000만 명, 2030년에는 6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하고 있다.

일본 관광 정책의 특징은 기존 도쿄, 오사카, 나고야 중심의 관광 개발 패턴을 벗어나 지방에 국제 관광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의 일본 재방문을 높이고 인구 감소로 쇠락해가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일본 11개 지역 광역 관광 주류 루트에 31개 모델 코스를 선정해 테마와 스토리를 가진 관광지로 집중 조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은 서울 등 수도권, 제주, 부산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 서울 공화국의 그늘은 관광 분야도 다르

지 않다.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2018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에 의하면 1534만 명의 방문 지역은 서울 79.4%, 경기 14.9%, 부산 14.7%, 강원권 9.7%, 제주 8.5%, 인천 8.3%, 대구 3.1%, 경북 2.8%, 경남 2.3% 순이다. 호남권은 2.9%로 광주, 전북이 각 1.1%, 전남 0.7%이다. 지방 관광 인프라의 부재는 외국 관광객의 재방문을 저하로 나타나는데 한국은 49.8%인데 비해 일본은 70.5%이다. 개별 여행객의 비중은 한국은 79.9%인데 비해 일본은 90.9%이다.

일본은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인해 공시지가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27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일본 국토교통성은 올해 3월 일본 전국 평균 지가가 1.2% 상승하는 등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 나갔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언론은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2014년 도쿄, 오사카, 나고야 3대 대도시권에서 시작된 지가 상승세가 4대 지방 거점 도시로 퍼졌다고 분석하고 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올해 평균 지가 상승률이 9.4%에 달했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이 해외 관광객 유치 목표 3000만

명을 초과 달성한 데에는 지방 공항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도 한 몫 했다. 저비용 항공사가 주로 취항하는 지방 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7년 1523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53%를 차지했다. 한때 일본의 지방 국제 공항이 재정 낭비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항하는 일본 내 공항만도 22개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사례는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관광 대국은 공명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2018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 방문 선택시 고려 요인은 쇼핑이 63.8%, 식도락 등 미식 탐방이 57.9%에 이른다.

호남 지역은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관광 자원과 연계한 음식 발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자원 개발에 혼신의 힘을 경주하여야 한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외국 관광객 유치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우리는 말뚝을 뽑고 천장을 깰 수 있다



양은호  
동신대 한의학과 4학년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훈육하는 방법으로, 새끼 코끼리 때부터 다리를 말뚝에 묶어 키우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성인 코끼리가 돼 충분히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져도 압전히 묶어 있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이야기로 ‘벼룩 상자 실험’이 있다. 벼룩은 자신의 신장보다 100배 높이가 뛰어올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상자에 가둬 키우면 상자 안 천장에 부딪히는 경험 때문에 스스로 뛰어올 수 있는 높이를 제한한 채로 성장한다는 실험이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나주에서 대학 생활을 다

시 시작하게 된 소위 ‘서울 샌님’이다. 나주에 오기 전까지 전라도 땅을 밟을 기회가 없었지만 어느덧 졸업반이 된 지금, 누구보다도 전라도와 이곳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가 서울과 나주, 두 곳에서 대학 생활을 경험하며 느낀 점이 있다.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할 점이 많은데도 많은 친구들이 지방 대학이라는 이유로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당연히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 이 정도면 썩잖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무척 안타까웠다.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마음의 양식인 독서를 도와주는 독서클럽, 자신의 견문을 넓히게 만드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자신을 성장시키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를 잡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

는 친구들도 많았다. 스스로 다리를 말뚝에 묶고, 비좁은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프로그램에 지원한다고 모두 합격하진 않는다.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 하진 않는다.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성공한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 역시 그보다 많은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탈락하는 경험을 수차례 반복했다. 다만, 매번 내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며 성공률을 조금씩 높였다. 그런 노력은 4학년인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로 얻게 될 소중한 경험마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나 스스로를 다잡고 있다.

학교 프로그램을 함께한 친구들이 마음속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는 일자리,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경우를 보며 자극도 받고 있다. 그들을 통해 스스로 한계를 정해 안주하는 것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게 훗날 어떤 차이

를 만드는 지를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코끼리 말뚝 이론’과 ‘벼룩 상자 실험’은 모두 환경과 습관에 대한 마음가짐이 자신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속 말뚝과 천장이 나جا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도움을 통해 이를 흔들여 본다. 간간힘을 써도 말뚝을 뽑지 못하고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때가 많지만 이 경험을 통해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언젠가 말뚝과 천장을 부숴 버릴 수 있다는 꿈을 꾸며 도전을 멈추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지방 대학이라는 이유로 각자의 한계를 규정 짓지 말고, 절대 한 수 접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더 넓은 세계에서 당당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말뚝을 뽑아내고 천장을 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바로 옆에 있다. 손을 먼저 내밀어 잡으려는 아주 조금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社說

음주 운전 사망 사고 오히려 늘고 있다니

올 들어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준 데 비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점유율은 되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 경찰청은 앞으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밤낮이나 요일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최근 불과 나흘 새 음주 운전 사고로 두 명의 시민이 희생됐다. 지난 7일 광산구 소촌동에서 만취한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보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3일에는 북구 풍향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C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D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으로 전년 동기 33명에 비해 51.5%나 줄었다. 반면 이 가운데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세 명(18.8%)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

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광주 경찰이 음주 운전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상시 단속에 돌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음주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음양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 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교통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 준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 행위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딱 한 잔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대리 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반전과 전율의 드라마’ 내친김에 우승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는 없었다. 이것은 축구인가 드라마인가. 역전 도 역전! 반전과 전율! 너무나도 극적인 승부였다. 영화 ‘어벤져스’보다 재미있었다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감동의 드라마였다. 36년 만에 집념과 투혼으로 이른 ‘4강 신화’였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세네갈을 상대로 3-3 무승부 후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3-2로 극적으로 승리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특히 광주 전남 출신 선수 3명(김정민·임원식·황태현)이 모두 맹활약해 지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다.

뒤늦게 경기장면(하이라이트)을 보고 또 봐도 재미있다. 전반 선제골을 내렸지만 후반 동점골로 역박질렸다. 연장 전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종료 직전 세네갈의 동점골을 허용했고(3-3), 승부차기에서 1,2번 키커가 실축해도 끝까

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83년 이 대회 전신인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이 4강에 오른 이후 36년 만에 다시 4강 신화를 달성한 것이다. 대단한 쾌거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포르투갈·아르헨티나 등 막강 군단이 속한 ‘죽음의 F조’에서 2승1패로 조 2위를 차지했다. 그렇게 해서 16강에 오른 뒤 속적 일본을 1-0으로 힘겹게 제쳤고, 8강전에서 천신만고 끝에 세네갈을 격파했다. 정정용 감독의 말대로 ‘구억구역 가지만 쉽게 지지 않’ 임임을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대표팀은 12월 3시30분 에라도르와 결승 진출 티켓을 다툰다. 남은 경기에서도 승승장구, 내친 김에 우승컵까지 거머쥐으로써 정치판에 식상한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無等鼓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이 최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다. 5·18 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20일 71세를 일기로 별세했지만, 과거 ‘나라종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때문에 국립묘지에 곧바로 안장되지 못한 채 5·18 구묘역으로 불리는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임시로 안장됐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날 23일 5·18 민주묘지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

아버지와 아들

속까지 아파했다. DJ는 과거 동고동락으로 귀가하다기도 병석에 있는 아들이 격정적 세교동 김 전 의원 자택으로 발길을 돌린 적이 많았다고 한다. 이희호 여사는 자서전에서 “김 전 의원이 아버지의 혐의를 허위로 자백하지 않기 위해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깊은 한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전 의원의 5·18 민주묘역 안장과 관련, 편히 쉴 곳에 묻혔다는 반응이다. 5·18 유공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군

부독재에 맞서 싸우다 수형적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그의 정치적 공간이 광주 정신에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년 전 세상을 떠나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남겼다.

늘어난 군부독재의 필박과 고문에 맞선 부자의 투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이제라도 하늘나라에서 만난 부자가 모든 것을 흘출 털고 이승에서 다하지 못했던 깊은 정을 나누길 기원해 본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역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